

보 도 설 명 자 료

(‘12. 2. 13)

수신 : 지식경제부 등록기자

제목 : 경기수원외국인학교 관련 설명(아시아투데이)

1. 지경부가 경기수원외국인학교의 정상화를 추진한 경위

- 경기수원외국인학교의 교비 약 136억원(대출 80억원 포함)이 대전 외국인학교로 부당하게 전출되어 문제 발생
- 지경부는 ① 경기수원외국인학교의 설립비(총 150억원) 50억원 지원
② 외국인투자자에게 좋은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주무 부처로서,
 - 경기수원외국인학교의 회계를 실태조사한 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권고(‘11.12.27)
- * 권고사항 : 학교의 설립·운영협약 해지 및 코리아외국인학교재단에 위탁 권고
- 협약 당사자인 경기도와 수원시가 설립·운영권자에게 기존 협약을 해지 통보(‘12.2.9)

2. 경기수원외국인학교의 운영을 코리아외국인학교재단에 위탁 권고한 배경

- 동 재단은 용산외국인학교 운영자로, 학사와 재정을 분리 운영하고,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등 외국인학교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어 동 재단에 위탁토록 권고하였음(‘11.12.27)
- 경기수원외국인학교 운영자를 결정하는 것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전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, 현재 양 지자체에서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 중
- 지경부와 관련있는 기관에 위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
- * 코리아외국인학교재단은 용산외국인학교 건립 추진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, 지경부는 서울시, 경제단체 등 설립 당시 재정을 지원한 기관과 함께 이사회원으로 참여

☎ 자료문의 : 지경부 투자정책과 과 장 김선민(02-2110-5360)
지경부 투자정책과 사무관 위순이(02-2110-5354)